



삼척 가스폭발사고 피해자 돕기에 보내주신
온정의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마다 추석 무렵이 되면 풍족한 마음 뒤편으로 스산함과 영혼의 고독이 찾아들은, 자연이 주는 풍요로움 만큼이나 우리 인간에게 자기 성찰의 값진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 해의 결실을 하나씩 맺어가는 계절!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한 가을의 기도를 올리면서,
지난 7월 갑작스레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 돕기에 보내주신 온정의 손길에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곧장 하늘 뚫고 올라 원망소리 하고픈 맘 앞서고, 황망(慌忙)증이라 일일이 보답하지 못해 죄송스런 마음이 수십 깊은 사람위해 오래도록 비추는 만월(滿月)만큼이나 그지없어 우선, 서한으로나마 고마움의 인사를 올립니다.

각계의 크고 작은 사랑의 온정 덕분에 피해 주민들은 고난을 극복하고 재기의 꿈과 희망을 싹틔우고 있습니다.

구름사이로 다시 나온 태양처럼 전 보다도 더 밝게 빛날 수 있는 커다란 힘을 얻었고, 우려해 마지 않았던 추석 명절을 큰 걱정, 근심 없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삼척시민 모두는 금번 사고를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기회로 삼아 더욱 화합하고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아무리 이세상에 情이 없어지고 각박하다손 치더라도,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도움의 손길로 인해, 우리 민족이 반만년을 지켜온 고귀한 유산,

어려움이 닦혔을때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환난상휼(患難相恤)의 역사를 재창조 하였고, 그 명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 복구와 더불어, 피해 주민들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 지역재난 구호조례”, “가스폭발사고 사상자 위로금 지급조례” 제정 등 각종 대형사고를 당한 피해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과,

지방세 납부연장, 소상공인 자금융자 지원 등 제도적인 구호대책 마련에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성금과 함께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구호행정을 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처럼 가슴아픈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 모두와 합심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에 온 힘을 다해 가겠습니다.

내 고장 사람, 다른 고장 사람을 가리지 않고 오직 측은히 여겨 구제하기에 애써주신 모든 분들의 은혜를 뺏속 깊이 새기고, 보은(報恩)의 답례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성원과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일터마다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2. 9. .

삼척시장 김세우 드림